



이벤트갤러리커뮤니케이션 신뢰와 창조적 아이디어로 고객의 꿈을 실현한다



취미를 묻자 '생각하는 것' 이라고 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나온 치밀하고 힘있는 상상력으로 호남충청권 최고 기업으로 자리 매김한 이벤트갤러리커뮤니케이션(www.egckorea.co.kr)의 장선군 대표를 만났다. 단 한 번, 최고의 행사를 위해 각 분야의 프로페셔널한 직원들과 함께 수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고객을 감동시키는 이벤트갤러리커뮤니케이션의 저력을 발견해 본다.

이벤트갤러리커뮤니케이션(이하 EGC)는 전주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과 광주, 여수 등에 지부를 두고 남다른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전국적인 이벤트대행사와 실력을 겨루며 성장해왔다. 이벤트 분야는 자칫 행사 진행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람들에게 연상되곤 한다. 그러나 이벤트 분야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공간을 재구성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창조산업이자 신지식기반 분야이다. "고객이 프로모션 및 행사준비 시 직접 진행하기 까다로운 모든 부분이 이벤트기획의 업무 영역입니다. 기획 및 실행계획-홍보-사무국 운영 및 행정지원-세팅과 연출을 포함한 행사진행-결과보고까지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2년 진행되곤 하죠. 행사 당 60~80여 개의 연관기업이 함께 움직여 고용효과를 비롯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의 사고만으로 EGC가 평가받을 때는 아쉬움을 느끼지요"

EGC가 수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대략 5억~7억을 상회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그동안 진행해온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전주개막행사, 1999년 국가일몰행사 해넘이축제, 2002전주월드컵경기장기공식 및 월드컵거리 응원전 등의 프로모션, 남도음식문화축제 총괄대행, 전북세계물류박람회 대행, 전남광주 중소·벤처박람회 등 분야를 넘나드는 굵직굵직한 규모의 행사가 EGC의 역량을 반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형 기획사와 당당하게 맞서는 EGC의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까. 장 대표는 저력의 비결로 인재를 꼽는다. 현재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EGC는 관광, 이벤트,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급 인력이 주축을 이뤄 최고의 프로정신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자유로운 대화와 아이디어 교환으로 최고의 이벤트를 가능케 하는 계획을 만들어 낸다. 상호 존중에

입각, 80여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와의 유연한 관계도 EGC가 맡은 이벤트를 최고로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다. 인재를 귀히 여기는 만큼 직원들에 대한 대우도 남다르다. 자체교육 및 문화활동은 물론, 상상력의 가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1년에 몇 차례 해외연수도 가고 있다고 한다. 이번 달 역시 중국의 공연과 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 직원의 워크숍을 겸한 연수를 떠난다고. 한편 김제시에 1천여 점이 넘는 행사 소품실을 두어 언제 어느 행사라도 자체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역량도 EGC의 자랑이다.

이처럼 상상력의 소프트웨어, 든든한 인적인프라의 하드웨어를 두루 갖춘 EGC는 5월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올해의 목표 매출의 80%의 오더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장 대표는 현재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분야의 진출을 모색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신사업영역을 개발하고, 기업부문은 신제품발표회, 투자설명회, 판매촉진프로모션으로 영역을 넓힐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경우 도시를 콘텐츠로 한 모든 무형적, 유형적 문화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판매하는 컨설팅과 마케팅을 대행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벤트 연출은 순간이라 긴장을 멈출 수가 없다'는 장 대표. 그러나 재능 있는 자는 노력하는 자를 넘기 어렵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넘지 못한다고 했다. 업무의 긴장감을 즐기며 상상력과 아이디어,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사 분란한 협력을 통해 최고의 이벤트를 만들어 내는 장선군 대표와 이벤트갤러리커뮤니케이션. 그들의 다음 이벤트가 기다려진다.